

시민들과 따뜻한 겨울만들기



전주역사박물관, 동지·크리스마스 맞아 문화행사 전개

23일 박물관 지하마당서 '동지팥죽 나누기' 진행

24일부터 이틀간 전시실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25일 신소장품특별전 '전주예찬' 전시도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이 동지(冬至)와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나눔·문화행사를 전개한다.

먼저,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박물관 지하마당에서 '동지팥죽 나누기'를 진행한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선조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조상께 제사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려 귀신을 쫓아 새해의 무사안일을 빌었던 풍속이 있었다. 이

번 동지팥죽 나누기 행사는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세시풍속을 되새기고,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지난 2013년부터 안전한 먹거리인 우리 팥으로 만든 팥죽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누는 동지팥죽 나누기를 전개해왔다.

전주역사박물관은 또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박물관 로비와 전시실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는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즐겁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

물하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동안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겨울왕국' 등 크리스마스 특선영화가 상영되고, 어린이 브레인게임이 진행된다. 또, SNS이벤트(24일), 산타클로스와 즉석사진찍기 이벤트, 선물증정 등(25일)이 준비돼있다.

이밖에, 전주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5일까지 신소장품특별전 '전주예찬'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새롭게 확보된 박물관 소장품 중 전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를 간직한 유물을 선별해 소개한다. 1부 종패지향, 2부 온고을, 3부 호남제일성, 4부 예향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수문장 임용장', '어보병풍', '전라도 포평제목' 등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전주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박물관 관람과 더불어 정성스레 마련한 동지팥죽을 먹으며 묵은 액과 부정을 쫓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한파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공예를 통한 나눔'

남원시, 오늘까지 옷칠 목공예 동호회 작품 전시·판매

목기의 고장, 남원에서 옷칠 목공예를 통한 나눔행사를 가진다.

남원시청 로비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남원시 옷칠·같이교육' 수강생 및 옷사랑, 남원같이문화연구회등 옷칠 목공예 관련 동호회 작품을 전시·판매한다.

전시제품은 옷칠·같이교육 강좌 결과물 30여 점과, 관내 옷칠 목공예 동호회원 및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며, 특히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7 공예트렌드페어'에 선보여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번 기간동안 발생한 제품판매 수익은 전액 불우이웃들이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며, 수업기간 동안 수강생 및 동호회 회원들이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나눔에 의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제작한 제품들로 더욱 의미를 더한다.

남원시 옷칠·같이교육은 2014년부터 남원시에서 옷칠 목공예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이번 해에는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옷칠목공예체험관광조합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사라져가는 전통기능을 계승하고, 기존 기술을 개발하며 옷칠 목공예제품 개발과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역주행 도서 '82년생 김지영' 50만부 돌파

조남주(39)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출간 14개월 만에 판매 부수 50만부를 돌파했다고 민음사 측이 밝혔다.

'82년생 김지영'은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 '1982년생 김지영' 씨의 30여 년 인생을 통해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그렸다.

민음사 측은 "역주행으로 시작된 '김지영 열풍'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관심을 얻으며 페미니즘 이슈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 기록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2년생 김지영'은 대졸자 경



민음사 "대졸자 경력 단절 여성이 주체 이전 세대 페미니즘 작품들과 차별화"

력 단절 여성이라는 주제를 발견했다. 이전 세대의 페미니즘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이 책만의 동시대성이다. 이들이 경험하는 고대의 원인은 여러 세대를 관통하는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자 읽기보다 함께 읽기를 권하는 독자들과 자발적 홍보 역시 50만부 판매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꼽힌다"며 "50만부는 책을 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숫자만이 아니다. 여성들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그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지의 크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오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중간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케이티(KT)빌딩 12층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실에서 중간보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진상조사위에 신청 및 제보된 조사 중인 건수는 총 175건이다. 이와 별개로 주요 사건은 직권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특검 수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성격으로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신청 마감 결과 및 조사 현황 보고 ▲ 진상조사위 입수 전체 블랙리스트

문건 분석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 제도 개선소위원회 활동 보고 등을 발표한다.

특히 발표 내용에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경찰이 개입한 사실, 블랙리스트 가동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심사결과 표까지 조작했던 사실 등이 포함된다.

진상조사위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 대국민 보고가 필요한 경우 브리핑과 사인별 자료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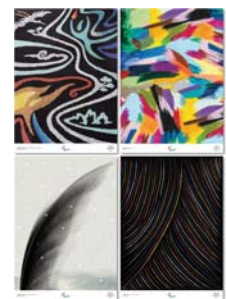
문체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예술포스터 한정판 판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예술포스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포스터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예술포스터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4개의 작품이다. 한정판(200세트)으로 제작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존에서 판매된다.

선정작은 ▲성지영의 '꺼지지 않는 불꽃, 평창' ▲김민정의 '무제' ▲윤여종의 '평창의 비상(飛上)' ▲김경주의 '찬란한 인(人)'이다. 작품이 선정된 모든 작가에게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이 수여된다.

문체부와 조직위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



림픽 대회가 열리는 내년 2월부터 문화역서울284에서 동계올림픽 예술포스터 선정작과 패럴림픽 예술포스터 선정작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역대 대회 포스터를 비롯한 아카이빙 콘텐츠를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뉴스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